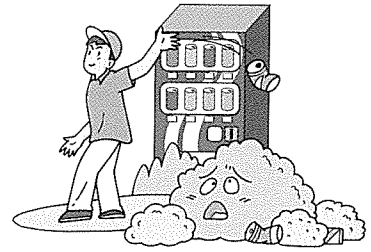


#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주몽 자판기에서 편의점까지...드라마 '주몽' 인기  
에 상표 도용 제작사 골머리.



40%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고 인기를 누리는 MBC  
드라마 '주몽'의 인기로 편  
승한 짝퉁 상품과 브랜드  
때문에 제작사가 골치를  
앓고 있다.

현재 한 인터넷 쇼핑몰은  
'주몽'의 포스터와 로고가

들어간 짝퉁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몽의 포스터를  
도용한 자판기도 유통되고 있다. 전남 나주의 '주몽' 오픈  
세트 근처에는 '주몽 편의점'까지 등장해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주몽'의 공동 제작사 올리브나인은 "주몽과 관련된 모  
든 로고는 상표등록출원을 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  
으로 무단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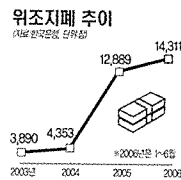
올리브나인은 이어 "아직까지는 규모도 크지 않아 '주  
몽'의 포스터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 혹은 개  
인들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지 않지만 무단 도용의 규  
모가 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피해보상 혹은 무단  
도용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방법 등까지 고  
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올리브나인은 '주몽' 관련 상품들을 제작업체 및 현대  
홈쇼핑과 같은 국내 최고 유통라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조만간 시판 할 예정이다.

올리브나인은 10월 방송예정인 '황진이'에 대해서도  
상표출원을 한 상태다.

## 지폐인식기 무사통과 위폐 급증

상반기 위폐발견 장수 1만4천장..작년동기대비 2배  
급증



성인오락실에서 1만원권 위폐가  
다량 발견된데 이어 일부지역의  
동전교환기에서 1천원권 위폐  
수백장이 적발되는 등 지폐인식  
기를 그대로 무사 통과하는 위폐  
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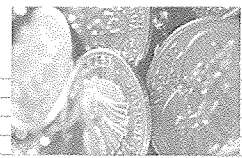
또 올해 1월 첫 발행된 새 5천원권의 위폐도 상반기중  
11장이 발견, 신고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만4천  
311장으로 작년 동기의 6천345장에 비해 2배 이상 늘  
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견된 위폐 1만2천889장을 초  
과하는 규모다. 특히 1만원권 위폐는 9천872장이 발견  
돼 작년 동기의 1천656장에 비해 6배에 달했다.

전체 1만원권 위폐의 절반 이상인 5천893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성인오락실에서 위폐범이 사  
용하다 적발돼 경찰이 실물을 압수한 경우다.

이러한 성인오락실 발견위폐를 제외한 1만원권 위폐  
(3천979장)는 작년 동기(1천656장)보다 2배 이상 급  
증했다. 1천원권 위폐는 모두 452장이 발견돼 작년 동  
기보다 7배가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한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에서  
1천원권 위폐 349장이 발견돼 일부 지폐인식 센  
서가 위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한은 관계자는 "성인오락기와 마찬가지로 일부 동전교환기의 지폐인식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위폐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기계의 지폐인식장치가 노후 또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폐를 걸러낼 수 있도록 동전교환기나 자판기 등 각종 기기에 좀 더 정교한 지폐인식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5천원권 위폐는 3천987장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3.8% 감소했다.

그러나 어린이나 학생 등이 스캐너 등을 이용해 새 5천원권을 위조해 유통시키다 적발된 경우도 발생, 상반기중 새 5천원권 위폐가 11장 발견됐다.

한은은 "새 5천원권은 컬러복사나 컴퓨터 스캔작업을 거칠 경우 홀로그램이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변조 여부가 금방 드러난다"면서 "상반기에 발견된 11장의 위폐도 모두 홀로그램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타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 고소의 보장 투자유혹 '주의보'

서울에 사는 L씨는 자판기로 양말·러닝셔츠 등을 파는 사업을 하는 A사에 4백만원(자판기 1대 구입가격)만 투자하면 10개월간 매달 45만원을 받고 A사가 1년 뒤 자판기를 구입 가격의 50%(2백만원)에 되사준다는 말에 솔깃해 4천만원(자판기 10대분)을 투자했다. 그러나 A사의 사장은 자판기 영업실적이 저조하자 투자자들의 돈을 챙겨 잠적했고, L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최근들어 상품권이나 자판기, 오락기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 2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상품권 판매업체인 S사는 투자자들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6천5백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자금을 끌어모았다.

S사는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발행하는 상품권 6천5백만원어치를 지급하고 이를 모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금감원 안용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고수익 보장을 믿지 않다가 모집책들이 배당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보여주며 끈질기게 유혹하면 결국 빠져들게 된다"며 "유사수신 업체들은 투자 초기에는 실제 고수익 배당을 해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사업이 잘못되면 업주가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지만 이 또한 분실 우려를 이유로 자신들이 보관하거나 사본을 주는 등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확인하면 금감원 금융조사반(02-3786-8157)이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통째로 나오는 수박자판기? 사과자판기!



방송에서 사과가 나온다는 이색자판기를 소개해 화제다.

지난 6월 30일 방송된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선 사과가 나오는 이색 자판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기한 사과자판기의 존재는 당초 '수박이 통째로 나오는 자판기'를 찾아 나선 제작진에 의해 발견됐다. 방송에 따르면 신기한 사과자판기의 실체는 서울 봉천동에

서 발견됐다. 수박자판기를 찾을 길 없던 제작진에게 '자신의 동네에 비슷한 자판기가 존재한다'는 제보전화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알려준 대로 동네엔 돈을 넣고 사과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실제 존재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과자판기에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박자판기의 존재여부를 떠나 이와 유사한 과일자판기가 있다는 사실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던 것.

사과자판기는 일반 자판기와 비슷한 형태를 띠었다.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원하는 개수만큼 사과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자판기의 시스템과 똑같았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1개에서 3개까지 뽑을 수 있게 제작된 사과크기의 틀거리에 사과가 떨어지면서 상처입지 않게끔 받침을 스펀지로 마무리 해 놓은 점이 이채로웠다.

이를 제작했다는 자판기의 주인은 "사과자판기 이외에도 유사한 과일 자판기를 3개 더 연구했다"며 이에 대한 관련 특허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찾아 나선 '수박 자판기'의 실체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찾아 나선 수박자판기의 실체는 네티즌이 올린 합성사진으로 드러나면서 '없다'로 판명됐다.

### 공무원 1회용컵 사용 줄었다

야외선 90% 여전히 1회용'...6곳 자료협조 안해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근무시 1회용컵 대신 이름이 인쇄된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56개 중앙행정기관 상주 공무원 11만8천915명 중 7만7천880명(65.5%)이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자기 컵 갖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용 컵 외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면 94.9%에 해당하는 11만3천명 가량이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무실 8천637곳 중 71%인 6천128곳이 방문하는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회의시 사용하기 위해 다회용 컵을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야외행사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준비한 사무실은 12.1%인 1천40곳에 불과했고 56개 기관 중 37%인 21개 부처에서는 행사용 다회용 컵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기관에 설치된 전체 자판기 1천495개 중 979개(65.5%)가 1회용 종이컵을 회수, 재활용하고 있으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는 11.5%인 172개에 그쳤다.

전 직원에게 개인 컵을 지급하고 자판기 컵을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1회용 '종이컵 줄이기' 모든 항목을 이행한 부처는 교육부·국방부·법제처·국정홍보처·산림청·관세청·소방방재청·중앙인사위·국가청렴위·소청심사위 등 10곳이다.

반면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부처로는 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저출산고령화정책본부 등 6곳이 꼽혔다.

환경부는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미흡한 분야를 자체 개선토록 하고 5월부터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군부대 등으로 종이컵 줄이기 또는 자기컵 갖기 운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경남] "1회용 종이컵 쓰지 맙시다"

경남도는 7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자판기 등에서 사용중인 1회용 종이컵 안쓰기 운동을 대



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 컵 갖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또 2단계로 9월부터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자판기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다회용컵을 사용토록 하고 컵 세척은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동세척기 설치 등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시행토록 했다.

이어 3단계는 11월부터 대규모 야외행사 시에도 다회용컵을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1회용 컵을 사용한 후 반드시 회수, 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200여개 업체에서 연간 120억개의 종이컵을 생산, 이중 10%인 12억개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용된 때 종이컵 가운데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13.7%에 불과해 일반폐지 재활용율(63.3%)에 비해 훨씬 낮다.

### 대학구내 자판기 잇따라 털려

대학 구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7대가 잇따라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월 3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 4대가 털린 것을 박모(28.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또 인근 전주비전대 구내에 설치된 자판기 3대가 털린 것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액은 400만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자판기 현금보관함이 노루발뿔이(일명 빠루)로 뜯겨나간 점으로 미뤄 대학 캠퍼스가 경비가 심하지 않은 점을 노린 전문 자판기털이범의 소행으로 보고 관내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호주 청소년들,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호주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해줄 것과 만 16세에 투표권 행사를 원하고 있으며 마약 경험자와 흡연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군소정당인 호주민주당이 해마다 전국의 15-2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스폴' 여론조사에서 거의 70%가 교내 콘돔 자판기 설치를 위해 지난해보다 9% 증가했고 대마초 흡연 경험자가 40%, 암페타민 또는 엑스타시 같은 환각제 경험자가 17%로 각각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1000명 가운데 또 한차례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밝힌 청소년이 거의 40%에 달했으며 흡연자의 비율은 지난해의 13%에서 18%로 크게 늘었다.

이들의 32%가 투표권 부여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낮출 것을 원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주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타샤 스토티 테스포야 상원의원(민주당)이 분석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동성 결혼에서부터 줄기세포 연구까지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확고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약 60%가 동성 결혼과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고 50% 이상이 보다 강력한 테러방지법을, 71%가 '권리장전'을 원하고 있으며 64%가 정부의 난민신청자 강제억류조치에 반대하고 82%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 연방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변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한 젊은이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2%나 됐다.

심리학자 마이클 카-그레그 박사는 사춘기의 평균 연령이 지난 1901년의 16세에서 이제 12세로 낮아진 가운데 10대들이 성인처럼 행동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그러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호주 학교서 청량음료 판매 금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 비치된 자동판매기나 구내식당 등에서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이 같은 조치는 심장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청소년들의 비만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모리스 아이엠마 주지사는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일 청량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시고 있으며 설탕 섭취량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1학기부터 주내 2천240개 학교에서 설탕이 들어간 청량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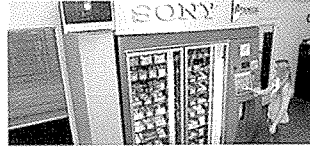
아이엠마 주지사는 학생들이 과거보다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부모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느껴야하겠지만 학교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주내 93개 학교 학생 5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9~12세 남녀 어린이 33% 정도가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호주 비만학회 팀 길 회장은 어린이들이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고는 있으나 주정부의 조치는 어린이들의 비만을 막는 데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식품산업, 교통 분야, 지역사회, 보건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카·MP3 자판기서 사세요

미국 내에서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전자제품을 판매하



는 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12일 소니가 애틀랜타와 콜로라

도주,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내 4개 지역에 '자동화 매장'으로 불리는 전자제품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소니 자판기는 제품을 보여주는 공간과 제품 사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카메라와 MP3플레이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용품 등 소니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니뮤직과 소니픽처에서 나오는 DVD와 CD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 고객 보호를 위해 각종 센서를 이용,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사인 줌 시스템을 통해 환불 시스템도 갖췄다.

미국 내 자동판매기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소니 측은 제공되는 제품 가격은 일반 판매가와 동일하지만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니는 연말까지 쇼핑몰과 공항, 채소가게 등지에 자판기 1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 카드로 굶는 콜라 자판기 나온다

동전, 지폐 등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자동판매기가 나온다.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마스터카드가 손을 잡고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1000개 자동판매기에 카드 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현금 결제 기능도 계속 된다.

미국 자동판매기 시장 규모는 400억달러로 소액 카드



결제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현금과 더불어 카드 결제도 가능한 자동판매기가 나오게 됐다.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5달러 미만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지난 2003년 기준 1조3200만달러에 달했다.

지금까지 일부 자동판매기 사업자들은 장비 설치 비용,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이유로 카드 결제가 되는 자동판매기를 기피해왔다.

필라델피아 코카콜라 보틀링의 도미닉 셀렌자 부사장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에서 소액 결제가 더욱 늘고 있는 추세"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자동판매기에도 소액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초·중교 청량음료 안판다" 펩시 등 美음료 3사합의**  
미국의 청량음료 빅3인 코카콜라, 펩시코, 캔드버리 슈웨프스는 앞으로 미국의 공립 초·중학교에 청량음료를 팔지 않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6월 3일 보도했다.

미국 학교음료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3개 업체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윌리엄 J 클린턴 재단, 미국심장학회(AHA)와 이런 방침에 합의하고 앞으로는 무가당주스 물 저지방우유 스포츠음료 등 저칼로리 음료만 팔기로 결정했다.

이날 클린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8세 아동이 매일 하루 45칼로리만 적게 섭취하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몸무게가 20파운드는 더 가벼울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아동 비만을 막는 육체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교내 매점, 음료수 자판기, 방과 후 활동 등에 모두 적용되며, 후원기금 모금회나 스포츠행사와 같은 학부모들이 참관하는 행사에서는 어른에게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코네티컷 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청량음료와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료의 판매를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캘리포니아 주와 메인 주 등에서도 학교에서 건강식을 파는 것을 강제하는 규제를 발효한 바 있다.

**교내 자판기·매점 식품등 먹거리...미 23개주 불합격 판정**

미국의 23개 주가 학교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소비자보호단체 '공익과학센터(CSPI)'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상대로 교내 자판기와 매점 등에서 팔리는 식품과 음료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 23개 주가 불합격 점수인 F와 D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학교급식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내 자판기를 탄산음료와 스낵, 케이크 대신에 생수와 말린 과일 등으로 채우도록 한 켄터키주가 A-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켄터키주는 학교 일과시간에는 자판기와 매점 등에서 우유와 생수, 주스, 당분이 적은 음료만을 팔고 감자칩과 캔디 바, 스낵, 케이크 등은 팔지 못하도록 했다고 관리들이 말했다. 이 단체의 영양정책 책임자인 마고 우탄은 "켄터키주는 다른 주에 비해 학생의 건강 보호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네바다, 아칸소, 뉴멕시코,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주가 B+ 뉴저지, 애리조나, 테네시주가 B 루이지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주가 B-를 받았다.

**아일랜드 공항, 콜라 자판기서 벨소리 다운 게임도 판매...매출 2배 높아져**

콜라 자판기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다운 받으세요!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의 코카콜라 자판기는 청량음료

만을 판매하지 않는다. 휴대폰 이용자는 자판기에서 호출음이나 디지털 로고, 또는 게임까지 구입할 수 있다. 청량음료의 인기가 날로 시들해지면서 고민에 빠져있는 코카콜라가 전세계 280만대의 자사 자판기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유럽지역에 코카콜라를 생산·판매하는 코카콜라 HBC의 클라이드 페레이라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지금까지 청량음료 사는데 주로 쓰였던 푼돈이 최근에는 각종 디지털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신형 자판기를 통한 매출액은 구형에 비해 평균 2배에 달하는 데,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료 판매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더블린 시내에서 신형 자판기의 설치지역이 늘어나는 한편, 영국·이탈리아 등 유럽 내 다른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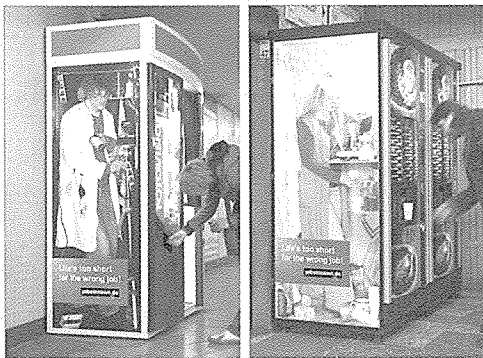
에도 보급을 고려하고 있다.

신형 자판기 기술은 영국업체인 인스파이어드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IBN)가 제공하고 있다. IBN은 사설마권업자나 빙고게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선 베티נג 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판기 생산에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적용했다.

코카콜라의 자판기 혁신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료대금을 결제하는 '다이얼 코크' 자판기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별도의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고객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반면 이번 신형 자판기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담이 없는 편이다.

### 새로 생긴 일자리 '기발'



네이버 봄에 '토이박스'님이 '새로 생긴 일자리'란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이입니다. 디지털 증명사진 자동판매기인 사진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있습니다. 사진사는 인화된 증명사진을 사진 나오는 곳을 향해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자동판매기입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자동판매기 안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님이 자동판매기의 커피 메뉴를 누르면 자동판매기의 내부에서는 한 여자가 커피를 만들어 손님에게 내는가 봅니다.

실제 자동판매기의 내부가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위 이미지들은 자동판매기의 한쪽면에 붙여 있는 광고물입니다.

모두 'Life is too short for the wrong job!', 'jobsintown.de'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독일의 취업 정보 사이트의 광고물로 보입니다.

'토이박스'님은 "실업의 대안이다. 국회로... ㅎㅎ 아, 물론 사진입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란 설명을 달았습니다.